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7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중고선가 지수는 87p로 전주 대비 1p 하락함. 현대미포조선이 E4C Shipping으로부터 5만DWT급 MR탱커 2+2척을 수주했으며 납기는 2021년 3분기라고 보도됨. 또한 Benelux Overseas로부터 5만 DWT급 MR탱커 2+1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1년 하반기라고 보도됨. (Clarksons)

VLCCs continue to languish, while product tankers see gains

지난 주 대형 유조선들의 운임이 일일 3만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됨. Baltic Dirty Tanker Index는 10p 하락한 520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전통 VLCC 운임의 경우 Ras tanura-Ningbo 노선이 일일 21,124달러, 서아프리카-닝보 노선이 25,368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chlumberger cuts 21,000 jobs

유전서비스 업체 Schlumberger가 2분기에 21,000여개의 일자리를 감축했다고 밝힘. COVID-19가 야기한 상황 악화,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부 개편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힘. 인력 감축 계획과 동시에 사업부 디지털화 전략은 유지한다고 밝힘. (Upstream)

하나금융, '한국판 뉴딜' 10조 지원...두산그룹과 MOU

하나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10조원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보도됨. 두산그룹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두산그룹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직·간접 금융지원을 하는게 핵심이라고 알려짐. (뉴시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 시작... 8,000억 예상... 9월에 분입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에 대한 막이 올랐으며 다음달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이르면 9월 새주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이며 시장의 예상처럼 두산밥캣은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됨. (이데일리)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진출 최종관문...성사시 5조원대 수주

한화디펜스는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시제품 2대가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평가 단계인 RMA(Risk Mitigation Activity · 위험경감활동) 이행을 위해 오는 28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호주 멜버른 항으로 향한다고 보도됨. 이번 시제품 납품은 호주군이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 및 계열차량 8종 등 4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랜드 400 페이스 3'(Land 400 Phase 3) 사업을 따내려는 작업이라고 보도됨. 총 8~12조 원의 전체 사업비 중 장갑차 획득에만 5조 원이 편성됐다고 보도됨. (연합뉴스)